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113

JCCT 2021-11-15

# 논리적 시간의 균열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 The Uncertainty of Logical Time The Time of Lacan's Psychoanalysis Flows Backwards

이동석\*

Lee Dong Seok\*

**요약** 이 연구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 : 1901 ~ 1981)이 1945년 3월에 『예술노트 *Les Cahiers d'Art*』의 복간호에 실은 논문 『논리적 시간과 선취된 확실성의 단언 : 한 가지 새로운 소피즘』을 토대로 시작한다. 이 논문에서 교도관이 세명의 죄수들에게 난해한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를 풀면 그 죄수는 석방된다. 문제를 풀기 위해 조건이 주어진다. 죄수들 상호 간의 대화 금지와 자신 등 뒤에 붙은 원반을 볼 수 없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죄수들은 선택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이해하는 시간'을 통하여 논리적 시간으로 자신들을 위치시킨다. 우리는 언제나 논리적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필자는 라캉이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을 파괴하는 지점을 주장할 것이다.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을 초월한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속의 과거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은 타자의 속의 시간이다. 라캉 정신분석 시간개념의 초월성은 논리적 시간의 일탈을 보여준다. 필자는 본문에서 라캉이 정신분석과 시간의 문제를 타자 속의 시간과 어떻게 대비시키는가를 증명해 보려 한다. 첫째,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과 충동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의 사후성을 논할 것이다. 셋째로 라캉 정신분석 시간의 초월성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에서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논리적인 시간은 타자의 영토에 있으며, 무한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주요어** : 시간, 라캉, 정신분석, 사후성, 기억, 환상, 충동

**Abstract** This study begins on the basis of Jacques Lacan's article 『Logical Time and Assertions of Preemptive Certainty: A New Sophism』 published in the reissue of 『Art Note Les Cahiers d'Art』 in March 1945. . In this paper, a guard presents an esoteric problem to three prisoners. If the problem is solved, the prisoner is released. A condition is given to solve a problem. Conversation between prisoners is prohibited, and the disc behind them cannot be seen. In this time and space, prisoners place themselves in logical time through the 'time of understanding' in order to become the chosen ones. We always live in logical time. We will argue the point at which Lacan destroys logical time in psychoanalysis. Time in Lacanian psychoanalysis transcends time division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ur time is always the past in the present. In Lacanian psychoanalysis, logical time is the time in the Other. The transcendence of the Lacanian psychoanalysis concept of time shows the deviation of logical time. In this text, We try to prove how Lacan contrasts psychoanalysis and the problem of time with time in the other. First, we will examine how logical time and impulse are related in psychoanalysis. Second, the postmortemity of the signifiant (signifier) will be discussed. Third, Lacan psychoanalysis will present the transcendence of time. In conclusion, We will present the view that the time of Lacan psychoanalysis is flowing backwards. In Lacanian psychoanalysis, we try to prove that logical time i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and is infinite time.

**Key words** : Time, Lacan, Psychoanalysis, Nachträglich, Memory, Fantasy, Drive

\*정회원,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5일, 수정완료일: 2021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20일

Received: September 5, 2021 / Revised: September 12,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Corresponding Author: vaiolee9@hanmail.net

Dep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okje Univ, Korea

## I. 서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었고, 현재, 미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엄격하게 보면 과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다. 미래의 시간은 막연하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인가? 현재는 언제나 과거 속에 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존재의 의미는 계속 소멸 중이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것은 죽음 충동이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죽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죽음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더욱 주체를 자의적으로 고립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주체의 특수성은 아니다. 특수성이 인정되어도 누구도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강력한 상징계(언어에 의해 의미화된 세계)의 시간이 작용하는 장소에 있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상징계의 장소가 대타자의 영토이다. 주체는 대타자 영토 속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문제는 타자 속의 시간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환상을 갖는다. 결과는 반대이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조차 볼 수도 없으며, 지나간 시간조차 되돌릴 수 없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알 수 있으며, 언어의 습득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과거 속으로 소멸한다. 계속해서 과거 속으로 주체의 자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지나간 시간의 공백을 환상을 통해 매우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 1770 ~ 1831)은 인간을 '살면서 죽어가는 존재'라고 했다. 이런 숙명을 타고난 우리는 타자의 시간 속에서 물 한방울 보다도 못할지 모른다.

이 연구는 현재의 과거 속에서 주체의 균열의 지점을 들여다보면서 라캉이 시간을 파괴하는 지점을 제시할 것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시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체의 환상이 매우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라캉이 1945년 발표한 논문 “논리적 시간과 선취된 확실성의 단언 : 한 가지 새로운 소피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것이다.[1]

그리고 시간이 충동과의 관련성을 통해 시간의 불균형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의 사후성을 분석해보고, 시니피앙(signifiant)의 운반과 인지가 타자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무한대의 시간성을 가진다. 어릴 적 만족 상실의 장소와 시간을 회복하려는 주체는 끊임 없는 환상의 여행을 한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멈춰진 주체의 시간을 분석할 것이다.

## II. 논리적 시간의 균열

라캉은 “논리적 시간과 선취된 확실성의 단언 : 한 가지 새로운 소피즘”에서 교도관은 죄수들에게 난해한 문제를 제시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죄수들을 라캉 정신분석 상상계 관점(의미화가 일어나지 않은 세계)에서 풀어 보려 한다. 쉹양 왕(CHENYANG WANG)은 라캉의 연구와 관련하여 시간의 개념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주로 죄수들이 제시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고 추리의 관점을 통해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2] 필자는 이 검증을 시간과 충동의 관점을 첨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각각의 주체들에게 의미와 무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라캉은 죄수들의 주체에 대해 말하기를 “이해관계를 정의합니다. 즉, 주체 자체가 자유로운 주체입니다.”라고 했다.[3] 주체 자체가 자유로운 주체인데 왜 죄수들은 타자의 지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러나 죄수들은 확실히 욕망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구일지 결정하기 위해 나는,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한 가지 문제를 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두 세 분입니다. 여기 다섯 개의 원반이 있는데, 모두 똑같고 색깔만 다릅니다. 즉 세 개는 흰색이고 두 개는 검은 색입니다. 나는 어떤 색깔의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은 채로 여러분 각자의 등 뒤에 이 원반 중 하나를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원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거울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 그것을 간접적으로 비춰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

러분은 다른 두 사람과 그들의 등에 붙은 원반을 바라보고 충분히 숙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찰 결과를 서로 말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여러분의 이익에도 배치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등 뒤에 붙은 원반이 무슨 색깔인지 제일 먼저 알아내는 사람을 석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것처럼 알아맞힌 사람은 자신의 결론에 대해 단지 확률적 설명뿐만 아니라 논리적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즉 그런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제시하는 대답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교도관이 죄수들에게 제시한 자유를 내건 논리적 게임의 망설임과 서두름의 시간은 이미 주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르스 핑크(Bruce Fink : 1956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차례로 떠나게 하는 타자를 위한 시나리오 ‘더 쉬운.’” 핑크가 말 한대로 그들의 이점은 없다.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다. 핑크는 말하기를 “주관의 확실성은 이미 결론의 순간에 존재한다. 그러나 객관적 진리로서의 그 상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시다.” 고 말한다. 이 언급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핑크는 주관의 확실성과 객관적 진리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만, 필자의 관점은 다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주관과 객관의 분리는 무의미하다. 이와 관련하여 라캉의 언급을 보자.[4]

“문제는 당신이 이해의 시간이 같다고 가정할 때에만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복잡해지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수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은 타자를 통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체의 확실성은 상징계의 세계를 통해 객관적 진리를 부여받는 구조이다. 라캉은 “상징적 시간은 주관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시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언급한다. 상징계의 시간은 타자의 영토 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관성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죄수들의 자유를 위해 도출한 답은 타자를 대체한 오답이다. 바디우(Alan Badiou : 1937 ~)는 상징계에

서의 죄수들의 결론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징계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을 현실로 노출시킴에 의해 한계를 초과하는 주체로서의 태도이다.”[5] 쉹양왕(CHENYANG WANG)은 바디우와 입장을 같이 한다.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확실성은 객관적인 사실 안으로 변형된다. 죄수들의 자유 보장은 타자의 요구에 의한 그들의 수정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이란 형성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다른 대체공간은 제공되지 않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지젝(Slavoj Zizek : 1949 ~)은 이에 대해 폐쇄라는 비유를 한다. “폐권적 이념 영역 및, 또는 기존 사회 구조의 폐쇄를 방해한다(존재의 타자).” 지젝의 비유는 의미심장하다. 인간존재는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그 누구도 기존 사회 구조의 폐쇄를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실제로는 과거 속에 파묻힌다. 또한 수정의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시간만이 실제 시간일 수 있다. 시간이 폐쇄를 창조한다. 죄수들이 석방의 문제를 풀었다고 하여도 그들은 또 다른 타자의 시간 속에 갇히게 된다. 지젝의 주장처럼 자신의 위치를 부정하며 머물 수 있을 때 비로소 주체로서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은 타자의 영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죄수는 지젝이 주장했던 타자에 지식에 대항하는 “까다로운 주체”[6] 가 될 수 있는가? 죄수들은 자신들의 충동에 솔직할 수 있는가? 세 명의 죄수 중 누군가는 자유를 구걸하지 않고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죄수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항하는 주체는 등장하지 않았다. 핑크는 대항하지 못하는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할 수 없는 잘못된 의식과 무의식에서의 언어의 자동 기능 사이에서 말입니다.”

죄수들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의 문제에 대해 다음장에서 다루겠다.

### III. 충동의 시간

죄수에게 실제 시간이 등장할 수 있는가? 실제 시간은 신체의 시간이다. 지젝은 흥미로운 엘리베이터 담화를 제공한다. “그들은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인 반면, 실제로 개인이 흥 버트만 누를 때와 동시에 문이 닫힙니다.”[7] 이 엘

리베이터에서의 행위자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논리적인가? 충동적인가? 신체의 행위와 논리적 시간은 다르다. 왜냐하면 충의 선별의 논리보다 누르는 행위는 충동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모든 실제 시간은 충동의 시간이기도 하다. 충동 회귀의 시간이다. 필자는 이 점을 중심으로 죄수들의 논리적 시간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부분충동인 시관충동, 호연충동으로 죄수들은 석방의 해답을 획득하려 한다. 그러나 충동의 시간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다. 충동은 신체의 구멍을 평생 동안 돌아다닌다. 신체에 구멍을 가진 주체는 충동의 주체이다. 죄수들에게 주어진 논리적 시간의 제한성과 이해하는 시간의 반응은 부분 충동을 매개로 신체가 반응한다.

“내 원반은 흰색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두 동료는 모두 흰색 원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검은색이라면 그 둘은 모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말입니다. ‘만일 나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흰색임을 금방 알아차리고 곧장 문을 열고 나가겠지. 그러므로 나는 검은 색이 아니야.’ 그리고 둘은 자신이 흰색임을 확신하고서 모두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결론을 알리기 위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핑크는 죄수의 결론을 거세와 연결시킨다. “그가 거세의 정신적 타격에 이미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흰색이라는 결론을 결코 재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8] 시간의 망설임과 서두름은 자유로운 판단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판단은 거세된 판단이다. 이미 보장된 자유가 아닌 장소에서의 판단은 더욱 그렇다. 죄수들의 자유는 보장된 자유가 아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자유이다. 만약 이것이 자유라고 해도 소멸되는 자유일 수 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 앞에서 망설임과 서두름이다. 바디우는 “서두름의 자각은 타자가 아마 열간이라는 가능성 안에 의존하는 있는 곳이다.”라고 말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죄수들은 완벽히 타자의 세계 안에 사로잡힌다. 충동의 주체로서 자유의 시니피양(기표, signifiant) 앞에서 타자를 열간으로 만

들어버린다. 죄수들은 망설임과 서두름의 시간에 도착된다. 호연충동은 타자와의 종속관계를 부정한다. 타자를 열간으로 만들어야 죄수들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망설임과 서두름은 주체의 호연충동을 작동시킨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수감생활 끝에 죄수들의 정체된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주체는 감지한다.

죄수들은 처음으로 죽음을 욕망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은 지식 즉,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타자의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구금된다. 구금의 장소는 시간이 멈추는 장소이다. 주체가 죽어도 관심이 없으며, 살아있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징계로부터 부여된 멈춤의 장소이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선 죽음 충동의 시간이 주어진다. 라캉의 죽음 충동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을 보자.

“만약 그들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예를 들어, 광장을 보기 전에 정반대로 가는 존재는 광장이 사라지는 것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9]

다른 죄수의 등에 있는 원반을 먼저 보고 죄수는 보지 못할 것이다. 시간충동에 의해 다른 장면은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를 위해 안정된 상징계로 들어가기 위해 죄수들은 타자에게 몸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이 난제에서 재물에 불과하다. 죄수들은 이 장소에서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아무런 방어막이 없다. 오로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질 때, 죄수들은 충동의 주체로 가야한다. 바디우는 “법의 정체된 시간의 회복 없이 실제로 자신을 노출함”으로 언급한다.

법과 삶을 죄수들은 연관시킨다. 자기비하와 자기비난의 과거의 시간을 인정하고 법의 세계에서 회복 없이 바디우의 표현처럼 자신을 노출시킨다. 법은 고발로부터 성립된다. 죄수들은 삶에서 이미 고발된 상징계 속에 있다. 그러나 또다시 서로를 고발하는 장소에 처하게 된다. 아무런 객관적인 정의가 없는 무법의 세계에서 상대방의 원반을 해석해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상징계면서 상상계의 시간이다. 상상계의 시간 여행은 시관충동이 출현한다. 왜냐하면, 상상계는 언어에 의한 의미화가 개시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관충동이 죄수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시관충동은 언제나 왜곡된다는 것이 문제다.

먼저 교도관이 부여한 상징계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시관충동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죄수 중 한 명이 나보다 똑똑하다면 나의 판단은 틀릴 것이다. 이때 나의 원반은 무슨 색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경우로 세 명의 죄수 중 한 명이 무지하다면, 나의 논리적 설명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교도관에게 설득될 수 있는가? 바디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승리는 이동 중에 생각하여 우위를 점하는 자의 것이다.” 죄수들 간의 상호주체성이 파괴되고 균열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죄수들의 승리는 이해하는 시간 속에 있다. 신기한 부분은 그들이 “이해하는 시간 (에크리, ÉCRITS)”에서 산출한 논리는 같다는 것이다.

라캉은 자신의 강연에서 ‘덮는 기억’이란 언급을 한다. 죄수들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덮는 기억을 벗겨내야 한다. 즉 상징계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를 구축해야 석방될 수 있다. 상상계의 암흑의 시관충동 속에서 논리적 시간이란 상징계의 토대로 구성하지 않으면, 상징계로 갈 수가 없다. 이들이 추구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속의 불가능한 미래의 시간이다. 이것은 실제의 시간이기도 하다. 상상하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을 지각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지각은 상징계가 마련한 지식의 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도달하는 결론은 모두 같다. 전부 흰색이다. 기표보다 더 강력한 대타자의 영토를 이들의 몸이 지각보다 먼저 반응한다. 즉 리비도가 몸 구석구석의 모든 성감대의 영역을 점령하여 사고보다 먼저 반응시킨다. 시관충동을 통해 상징계의 사고를 도입할 것이며, 교도관의 목소리인 호언충동은 더 강력한 상상계를 양산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 충동은 논리적 시간의 난제를 스스로 현실원칙과 쾌락원칙의 경계에서 이미 결정지어진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바디우는 죄수들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틀에 의해 도출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완벽한 호혜주의, 세 명의 죄수들 사이의 엄격한 논리적 정체성.” 이 언급은 라캉의 의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의 사고체계는 상징계의 팔루스에 의해 작동되고, 라캉이 주장한 것처럼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기표가 하나일 때는 의미가 없지만, 기표가 다른 기표로 연쇄될 때는 이미 우리 사고의 잠재성은 ‘이미 있는 것이고 아직’ 혹은 ‘하는 것이거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는 잠재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상징계의 사고를 통한 논리적 시간의 잠재성은 타자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다고 하는 라캉의 실재계는 항상 거기에 머무는 것이다. 바디우의 사고도 여기에 편승한다.

라캉 정신분석의 주체는 오이디푸스의 구조를 거치면서 신체의 파편을 통합하여 언어의 상징계를 거친다. 그 잃어버린 충동의 시간을 찾기 위한 여행의 목적이자 상실의 기표는 죄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의 특수성의 환상이 오히려 더 강력한 대타자를 맞이하게 된다. 마치 나의 판단이 옳아서 나의 타당성이 교도관에서 가장 멋진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환상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죄수의 석방에 대한 간절함과 정당성이 교도관에서 완전히 전달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죄수는 발화하면서 충동의 시간 속에서 발화할 것이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조차도 못할 것이다. 논리적 시간은 언제나 균열의 시간이다. 따라서 죄수들의 판단은 사후성을 갖는다.

#### IV. 사후성의 시간

김석은 프로이트의 『토템과 터부』에서 아버지의 살해라는 상징적 사건을 통해 더 강력한 법을 만드는 아들들에 주목한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 1856 ~ 1939)는 이것을 사후복종(Nachträglichem Gehorsam)의 논리로 설명한다. 사후복종은 마음속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금제인 터부를 받아들이는 행동이다.[10] 이 두 가지 터부는 자식들의 애도에 의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복종이 된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토템의 도살을 금지하고 근친상간의 금지를 사후복종으로서 제정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사후복종의 단어를 계승하여 시니피앙(signifiant)의 개념으로 연결시킨다. 라캉은 시니피앙의 사후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Nachträglich(나중의, 뒤늦은)’이란 뜻의 독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한 개의 언설(言說)에는 한 개의 소재 한 개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언설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설에는 시간 속에 차원과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개의 구절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내가 끝까지 말을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라캉은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의 사후적 행동 (l'action nachträglich du signifiant)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시니피앙이 의미를 운반하는 시간의 우위에 있다는 라캉의 주장이다.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 1857 ~ 1913)가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와 시니피에(기표, signifié)를 동일 선상에 놓은 것과는 명백하게 구별된다.[11] 최초로 시니피앙이 있고, 그 후에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이 있다. 또한 라캉은 그의 세미나에서 말하기를 “시니피앙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최초의 시니피앙은 시간의 통로를 거쳐 의미화가 성립된다.

“내가 한 개의 구절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내가 끝까지 말을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시니피앙의 시간과 시니피에의 시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한 개의 구절이 그 다음의 구절을 연결되는 것을 시니피앙의 연쇄라 한다. 두 개의 시니피앙이 서로 간에 의미작용이 일어나고, 의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이미 구성되어 있었던 구성이 발화의 의미작용에 간섭을 하게 된다. 시니피앙이 포착되는 시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언어의 환유가 더 다양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Nachträglich (나중의, 뒤늦은)’란 불규칙한 청자의 의미 해석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시니피앙을 운반하는 자는 발화자가 아닌 시니피앙이란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니피앙은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의 무한성을 운반한다. 시니피앙은 의미화되는 사물과 대상을 끊임 없이 연쇄시킨다.

언설에서의 시간의 차원과 무게는 충동과 관계를 지을 수 있다. 라캉은 에크리(ÉCRITS)에서 “모든 충동은 실제 죽음 충동이다.”고 언급했다. 죽음 충동은 시간의 구조 속에 있다. 라캉은 “개념은 사물의 시간이다.”, “이름은 대상의 시간이다.” 개념과 이름은 충동이 멈춰진 시간이다. 언어에 의해 의미화가 완성된 시간의 시니피앙이다. 발화자는 사물의 개념과 대상의 이름을 통해 명확하게 언어로 일치시킬 수 없다. 모든 대상과 사물은 언어에 의해 사후성으로 파악되어 표현된다. 사후성으로 의미화된 언어는 의미의 탄생과 의미의 죽음을 계속 반복한다. 언설에서의 시니피앙은 의미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잃어버린 시니피앙의 회상을 불러온다, 이것이 트라우마다. 따라서 트라우마는 잃어버린 최초 시니피앙의 회귀이며, 이 회귀의 원천에는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은 시간의 통로에서 억압받은 과정 속에서 유추할 수 없는 최초의 시니피앙이고, 여기에는 타자의 지식을 대리하는 주체가 있다.[12]

라캉은 죽음충동과 연관하여 독특한 주장을 한다. “죽음충동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입니다.” 라캉은 그 무엇보다도 강연 그 순간을 중요시하였다. 나와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충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가 보기엔 라캉은 정신분석가에 대한 Manifestation(시위)로서 강연을 하였다. 일종의 집회선동이였다. 언어의 폭력과 지식의 세계에 욕망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시위로서 그의 세미나는 지속적인 욕망의 표출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캉은 교육 분석 강연을 하면서 정신분석에 대해 죽음 충동의 시간을 감지하는 주체로서 그의 청중들에게 대항하였다. 라캉에게 강연 중의 실제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자크 알랑 밀레(Jacques Alain Miller : 1944 ~)가 라캉 교육 분석을 ‘피를 흘리는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듯이, 라캉 정신분석에서 주체가 욕망에 대한 자세는 피를 흘리는 고통으로서의 죽음의 충동을 계속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강연을 듣는 정신분석가에게 끊임 없이 대항하는 태도를 고집했다, 라캉은 죽음 충동의 의미를 실제 시간과 관계시켰다.

## V. 라캉 정신분석 시간의 초월성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아래의 그림에서 전의식(Preconsciousness)에서 기억의 형성을 보여준다.[13] 이 그림은 우리의 기억이 억압과 부인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무의식이다. 필자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림 속에서 프로이트의 시간의 개념이다. 무의식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 구분은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구분을 할 수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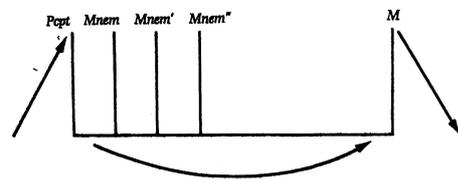


그림 1.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Figure 1. The Interpretation of Dream

정신분석에서 시간의 초월성에 대해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어릴 적 기억을 연관시킨다. 아드리안 존스톤(Adrian Johnston : 1974 ~)은 말하기를 “어릴 적 소망의 불변성, 리비도의 다형도착의 지속은 승화를 통해서 활성화시킨다. 신경증 안에서 초월적인 대상선택의 메커니즘”[14] 이라 일컬으며 프로이트의 어릴 적 불변성에 대해 주목한다. 불변성이란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이다. 이에 스트레이치(Giles Lytton Strachey : 1880 ~ 1932)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직접 암시한 “시간을 초월한” 이 용어를 연구해왔다. 프로이트는 말하기를 “억압된 기억 흔적의 경우 가장 오랜 시간이 지난 과정조차도 변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년 후 비슷한 언급을 한다. “처음 수용한 형태 뿐만 아니라 그 후 성장에서 채택한 모든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의 가장 가치있는 기억인 어릴 적 영감을 강조한 방법을 정교하게 한다.

“일부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필수적인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 유지되어 왔다. 분석을 통해 어떻게 이것을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무의식은 어릴 적 기억과 관련이 있고, 프로이트의 발언처럼 어릴 적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주체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역행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시간은 여러 방어기제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충동의 시간여행이다. 옆의 프로이트 ” 꿈의 해석“의 그림은 우리의 정신구조 속에 기억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지를 보여준다. 기억이 의식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더 이상 저장될 수 없을 때 밖으로 튀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나온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이것은 시니피앙과 관련이 있다.

라캉이 프로이트의 리비도와 무의식의 전통적인 정신분석을 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시니피앙(signifiant)의 개념이다. 시니피앙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 1857 ~ 1913)의 개념이다. 소쉬르가 언어와 시간을 연관시킨 언급한 내용을 보자.

“발화자들의 공동체 없이 우리가 제 때에 언어를 고려했다면... 우리는 아마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언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발화자들의 공동체를 고려한다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에 나오는 위 언급은 프로이트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소쉬르의 언어철학이다. 소쉬르의 언어는 말하는 주체의 기능이 아니다. 언어에 대한 소쉬르의 입장은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움직이는 주체로 언어 사용자를 명확하게 위치시킨다. 언어의 시간은 인간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는 대인관계 소통의 장소에만 나타난다. 라캉은 소쉬르보다 더 정교하게 운을 분석적으로 언급한다.

“동물적 차원, 즉 식욕적 차원에서의 일시성을 상상하는 것은 엄연히 불가능하다. 일시성의 abc는 언어의 구조까지도 필요로 합니다.”[15]

라캉의 언어분석은 소쉬르가 주장한 랑그(la langue)와 파롤(la parole)의 관점을 넘는다. 앞장에서 언급한 시니피앙의 사후성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파고들어 시니피앙의 일시성을 언급하고 있다. “내가 한 개의 구절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내가 끝까지 말을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다룬 언어의 사후성에 라캉의 세미나 언급이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시니피앙의 사후적 의미를 시체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시간은 타자 속의 시간이다. 철학에서는 비교적 구분이 명확하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체에 의해서이다. 라캉이 말하기를 “철학의 전체는 존재의 시간과 연결하는 명확함과 관계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구성안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 자체가 그 단어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라캉 정신분석에서의 시간은 시체의 구분은 모호하다. 실제의 시간은 유기체가 움직이는 시간에서만 가능하다. 상징계의 시간에서 현재는 과거 속의 현재로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의 실존은 시간의 연속 선상에서 해석할 때, 현재이면서 실체는 과거인 모순을 갖는다. 지금이라는 시점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 된다. 의미화를 이루기 전에 그 시간은 망각해 버린다. 의미화란 시각적인 정보나 청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통해서 지각된 것으로

이미 과거이다.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는 상징계에서 절대 등장할 수 없다. 기회는 실제에서는 존재하지만, 상징계에서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징계 사슬이 구성되면, 중요한 의미화의 통합을 도입하자마자, 통합의 승계의 형태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주체의 무의식이 시간에 맞서는 존재로 저항할 때, 언어의 기능의 토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징계의 시간과 연관될 수 있는가?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라캉의 이 유명한 언급은 상징계의 시니피앙 사슬에서의 기회의 시간은 이미 결정된 시간이란 것이다.[16] 라캉은 ‘상징계 안에서 간신히 견디는 것’이라 말했다. 상징계의 시간에서의 의미화는 결정되자마자 의미를 소실한다. 단, 상징계 안에서의 시간을 운반하는 대리자와 대체장소만이 남는다.

“등장인물들이 이 편지를 손에 쥐면, 무언가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개별적인 방식에 대한 지배권을 가집니다.”

라캉 세미나 “도둑맞은 편지”의 대한 언급이다. 등장인물이 상징계로 진입할 때 환상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실체는 몸을 가진 주체가 움직이는 동안의 시간만이 존재한다. 편지 소유권에 대한 권력을 손에 쥐면 타자의 지식의 체계로 들어간다. 등장인물 스스로 그들의 시간을 포기하게 된다. 상징화된 시간은 환상의 기화가 된다. 이와 같이 편지(시니피앙)에 의해 격리된 장소는 항상 시니피앙을 운반하는 대리자와 대체장소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시적인 의미화의 성공적인 방향을 향하여 지향한다.

## VI. 결 론

###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우리는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이 논리적 시간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시간대가 무한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초반에 죄수들은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논리적 시간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죄수들의 해답은 타자의 지식의 강력한 상징계의 영역으로 도출된 타자의 답이었다. 교도관이 제시한 석방의 딜레마는 죄수들을 망설임과 서두름으로 안내하였다. 망설임과 서두름은 죄수들의 삶을 법과 일치시키면서 불일치를 낳았다. 이 불일치의 원인은 충동이다. 죄수들은 욕망의 부분 충동인 호언충동과 시관충동을 통해 리비도를 집중시킨다. 이 과정에서 죄수들은 이해하는 시간을 통하여 논리적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충동은 논리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죄수들은 충분한 객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이해하는 시간에 머물게 되었다. 죄수들의 결론은 타자 속의 시간에서 도출한 바디우가 말한 ‘완벽한 호혜주의’에 불과하였다. 결국, 이들은 대타자의 영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필자는 시니피앙의 사후성에 대해 논하였다. 프로이트는 ‘토템과 타부’에서 사후복종(Nachträglichem Gehorsam)의 논리를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제시하였고, 라캉은 이를 계승하여 시니피앙의 사후적 행동 (l'action nachträglich du signifiant)을 언급했다. 죄수들의 사례에서 석방의 문제를 푸는 것은 사후복종에 의한 사후적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수들은 사후적 행동에 석방의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경유하여 교도관의 시니피앙을 운반하는 자와 인지하는 자로 분할된다. 운반과 인지의 논리적 시간이 죄수들에게 균열을 가져온다. 또한 제한된 시간은 죽음 충동을 느끼게 된다. 시니피앙을 이해하는 시간은 죽음 충동을 인지하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캉 정신분석의 주체는 욕망의 걸핍을 매우기 위해 시간여행을 한다. 주체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타자를 경유하여 타자의 지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욕망의 잃어버린 시간과 장소를 찾기 위해 기억이란 장치를 사용한다. 필자는 본문에서 어릴 적 기억은 해결되지 않은 형태로 잠재되어 있고, 이 시절의 시간은 정체된 시간이란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인이 된 주체는 무의식의 기억장치를 사용하여 과거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이 순간의 주체는 잃어버린 좌표를 찾는 목적성이 뚜렷한 여정이지만, 실제로는 목적지 없는 여행이다. 과거의 어릴 적 수유 시기에 엄마가 부여해준 최초의 만족 기표는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는 상실의

기표이기 때문에, 여행은 계속 미지의 타임머신을 타고 허공을 떠돌아다닐 뿐이다. 따라서 어릴 적 시간여행은 주체에게 정체되어 있는 미해결의 시간으로 남아 있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어릴 적 무의식의 시간은 불변의 시간이다.

정신분석 현장에서 분석주체가 우연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발화가 전개되는 일이 있다. 이 순간은 상실된 기표가 우연처럼 드러나는 순간이고, 우연이 실제와 다른 없는 진리의 순간이 된다. 핑크의 주장에 의하면 '실체에 명중된 시간'이다. 이 멈춤의 시간은 정체되지 않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주체는 끊임 없이 팔루스(phallus)의 세계에서 안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팔루스의 세계는 무의식의 출현을 끝까지 장벽으로서 기능하도록 장치화 되어 있다. 팔루스의 지배가 주체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주체는 아버지의 거세를 받아들인다. 주체는 상징계 언어의 세계로 진입한다. 언어의 세계는 안정화된 세계이며, 대상a(욕망의 원인)의 공간을 열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의 시간과 장소에 도달해도, 팔루스의 거세는 주체로 하여금 금지의 요구를 부여한다. 라캉의 표현에 의하면 '주체의 전복'이라 하고, 상실된 기표에 도착되고 있는 주체다.

정신분석에서 지식은 죽음을 의미한다. 지식의 장소는 대타자의 영토이고, 시간은 대타자 속에 있다. 대타자의 시간은 불변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언어로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주체는 대타자의 영토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흔들 수 있을 때, 어릴 적 잃어버린 시간과 조우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타자의 영토에 도달하는 시간은 과거 복원의 시간이 아닌, 현실 속에서의 과거의 일부분이며, 과거와 현재의 혼합된 시간이기도 하다. 현재는 불완전하며, 라캉 정신분석에서의 현재는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캉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캉의 정신분석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는 서로에게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존재는 계속 소멸해가기 때문이다. 살면서도 죽어가는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대타자의 영토에서 지속적으로 표지된다. 그렇다면 빗금친 주체(S)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서 그 지점에서 복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캉 정신분석의 목적지는 환상을

거슬러 가야 하는 장소이다. 주체는 시간의 환상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타자의 영토에서 주체의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가 일어나야 한다.

라캉은 인간을 기계에 비유한다. 라캉이 말하기를 '인간의 욕망을 간신히 강조하는 기능'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시계처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라캉이 언급했던 '자아 없는 의식'의 기능을 통해서 어릴 적 파편화된 주체는 잃어버린 대상a(욕망의 원인)를 대타자의 영토에서 양망한다. 하지만 라캉이 언급한 영토 '대타자는 불에 탄 영토이다(L'Autre est un terrain brûlé.)'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가 불에 탄 영토에 도달해도 주체는 의미 없는 무목적성이 된다. 불에 탄 대타자의 영토는 권력에 의해 계속 타들어가는 장소이다. 대타자의 영토 속은 언어로 가득차서 아이에게는 건질 것이 없는 황폐의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이는 황폐의 장소에서 욕망을 갈망하게 된다.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이해하는 시간을 사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언어의 세계에서 창조적인 것은 이미 창조된 것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다. 주체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방법은 대타자의 황폐한 영토에서 탈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체가 자신의 장소와 시간을 인지하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환상을 깨는 방법이다.

## References

- [1] Jacques Lacan, "ÉCRITS". tr., by Fink, (New York·London:W.W.Norton & Company, 2002).
- [2] CHENYANG WANG, "Subjectivity In-Between Times. Exploring the Notion of Time in Lacan's Work. Logical Time", (palgrave macmillan, 2019).
- [3] Bruce Fink,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6b).
- [4] Jacques Lacan, "Seminar II", 1954-1955, tr S. Tomaselli,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88).
- [5] Alan Badiou, "Theory of the Subject", tr, Bruno Bodsteels, (New York:Continuum, 2009).
- [6] Slavoj Žižek, "The Ticklish Subject: The Absent Centre of Political Ontology", (London: Verso, 2000).
- [7] Slavoj Žižek, "Enjoying your symptom!: Jacques Lacan in Hollywood and Out", (London: Routledge, 2013).

- [8] Bruce Fink, “*Logical Time and Precipitation of Subjectivity*,” In reading Seminars I and II Lacan's Return to Freud, (Albany: SUNT Press, 1996b).
- [9] Jacques Lacan, “*Seminar I, Freud's Paper on Technique, 1953-1954*,” J-A. Miller,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1).
- [10] S. Kim, Father's status : Origins of prohibition and jouissance, *Semiotic Inquiry*, Vol. 51, No. 0, pp. 29-57, 2017. DOI : <http://dx.doi.org/10.24825/SI.51.2>
- [11] T. Paik, Linguistic Turn and Education of Liberal Ar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6, No. 1, pp.279-288, February 29, 2020. DOI :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279>
- [12] Alenka Zupančič, “*What Is Sex?*”, (Cambridge, MA: MIT Press, 2017).
- [13] Sigmund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 In S. E. IV, (1901).
- [14] Adrian Johnston, “*Time Driven: Metapsychology and the Splitting of the Drive*”,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5).
- [15] Jacques Laca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 Desire and Its Interpretation, 1958-1959*”. Unpublished translation by Cormac Gallagher, (1959).
- [16] Jacques Laca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X, On Feminine Sexuality, the Limits of Love Knowledge, 1972-1973*”, ed. J. A. Miller trans, Bruce Fink,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9).